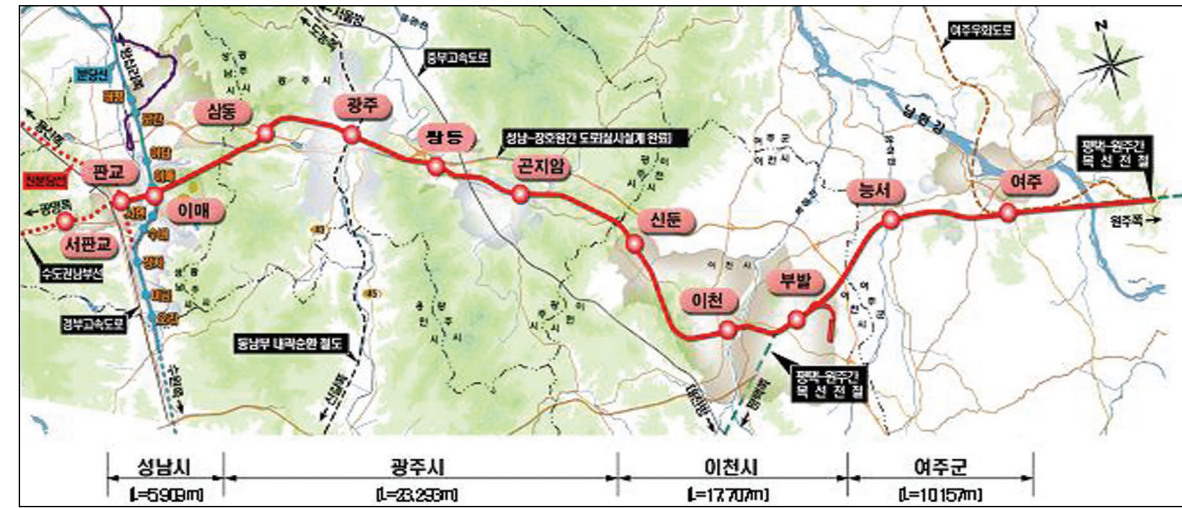


성남~여주간 8개 역사 실시설계 본격 착수

- 여객 편의시설 확충 및 교통망 연계강화 -



〈성남~여주 노선도〉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지난 달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의 이매, 삼동, 쌍동, 신둔, 이천, 부발, 능서 여주 등 8개 역사의 실시설계를 본격 착수하여 2015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광주와 이천을 거쳐 여주를 잇는 사업으로 현재 45%의 토목공정을 진행하였다.

본부는 이번 역사설계에 최근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여 주차장에서 승강장까지의 이동거리를 단축하고 철도와 연계되는 교통망을 설치하는 등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특히 동 구간의 열차운행 계획이 열차편성당 10량에서 6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역사설계에 반영하여 승강장 규모를 최적화 하

수서발 고속열차, 핵심부품 국산화

- 약 51억원의 수입대체효과 기대 -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윤)는 고속열차의 운전제어기, 제동제어기, 차상신호표시장치 및 계기용 변류기 등 4개 핵심부품을 국산화 완료하고 수서발 고속열차에 장착한다.

본부는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12년 2월 현대로템과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 운행에 필요한 고속열차 22편성(220량)을 구매계약하고, 기존 고속열차의 문제점 및 유지보수 불편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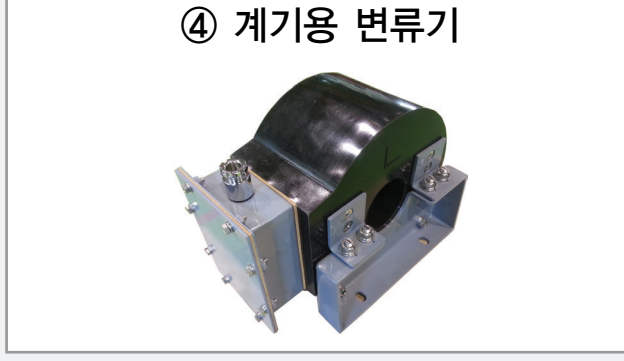
이번에 국산화한 4개 핵심부품은 국내 철도차량부품 제조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공인 성능시험기관의 엄격한 시험 및 검사를 거쳐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운전제어기는 기존 수입품보다 30만회 더 많은 총250만회 동작시험을 통해 내구성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전량 수입품을 사용한 고속차량용 운전제어기는 열차 운전제어 및 기관사 줄음방지 기능을 가진 핵심장치로, 고장이 발생하면 외국 제작 업체에 원인 분석과 수리를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유지보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확한 고장 원인분석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국산화를 통해 약 51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올릴 것이며 국내 부품산업 육성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진기전(주)



전국 147개소 철도유�휴부지 임대사업자 공모

- 일자리 창출 위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활동도 나서 -

시설사업본부는 지난 22일 입지여건이 좋은 전국 147개소의 철도 유허부지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4일 순천, 25일 대전과 부산, 26일 서울과 원주 등 5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허부지는 도심지역 역주변이나 선로연변에 위치하는 총 119개소(면적 43만 7,000㎡)로 개소당 규모는 최소 59㎡~3만7,032㎡이며, 편의점 등 판매시설, 물류집하장, 주차시설 등 활용 측면에서 선택폭이 넓고 접근성도 뛰어나 임대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귀농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농경지 10개소(2만㎡),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벤처기업의 사무실과 작업장 8개소(1만5,000㎡)를 최소 임대료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는 텃밭 10개소(1만 5,000㎡)를 무상으로 분양하여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관리하는 철도 유허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철도이용객의 편의증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는 한편, 공간 수익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공모 대상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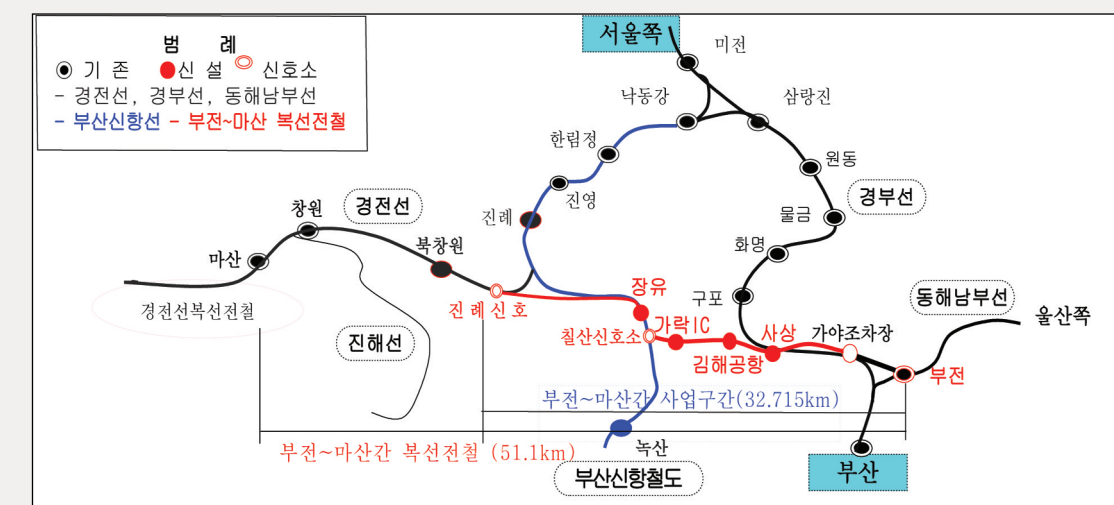
선 명 (대 상)	개소	면적(㎡)		소재 지역
		계	최소~최대	
계	147	486,578		
경부선	19	46,037	400~11,947	서울(1), 부산(6), 대구(3), 대전(2), 경남(1), 충북(3), 충남(1), 오산(2)
경전선	16	24,586	59~11,400	김해(3), 사천(1), 창원(12)
경춘선	15	57,290	240~25,000	춘천(6), 남양주(2), 가평(7)
전라선	12	57,520	700~14,000	여수(5), 익산(3), 순천(2), 전주(1), 남원(1)
중앙선	8	39,573	1,000~16,652	양평(5), 남양주(1), 원주(1), 영주(1)
기 타	49	211,736	75~37,032	서울(4), 경기(10), 강원(15), 부산(1), 경북(2), 울산(2), 전북(5), 충남(3), 충북(5), 대전(1), 광주(1)
저소득층(창업지원(귀농인))	10	14,615	243~3,959	경기(1), 인천(1), 경북(2), 경남(2)전남(1), 충남(1), 강원(2)
	8	14,910	320~3,833	부산(1), 대구(1), 경북(1), 경남(1), 대전(1), 전남(2), 충남(1)
	10	20,311	205~6,620	경북(5), 경남(1), 전남(2), 충남(1), 강원(1)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BTL)' 실시설계 직접감독으로 27억원 절감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를 직접감독함으로써 약 27억원의 설계감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철도민자사업은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직접감독하지 않고 설계감리 회사가 감독을 시행하였으나, 본부는 철도전문기관이 직접감독 수행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직접감독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약 27억원의 설계감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광역/민자철도차는 " '09년부터 국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모든 설계를 직접감독 시행함으로써 54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설계를 직접감독함으로써 사업비도 절감하고 직원들의 설계기술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로 유지관리 기준' 최적화로 매년 200억원 예산절감

- 열차운행 여건 및 속도 등 고려하여 차등 기준 적용 -

녹색철도연구원(원장 임영록)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선로(궤도)의 '철도 유지관리 기준'을 열차의 운행 여건 및 속도를 고려하여 최적화함으로써 연간 약 3500억원의 유지보수 비용 중 200억원(5.7%)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철도선로 유지관리 기준'에 의하면 운행속도가 200km/h 이하인 일반 열차의 경우, 열차운행 여건이나 속도와 관계없이 궤도 면맞춤(레일윗면의 높이차)이 상하방향으로 기준치인 7mm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보수를 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철도선로 유지관리 기준'은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우선 반영하고, 열차 승객의 승차감을 고려하여 속도대역별 보수 기준값을 설정하였다.

즉, 속도에 따라 각각 17mm, 15mm, 12mm, 11mm 이상 레일의 높이차가 벌어졌을 경우에만 유지보수하도록 하였고, 보수단계를 세분화(2단계 → 5단계)하여 불필요한 보수작업을 줄이는 등 인력과 보수용 자재를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할 수 있어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철도선로 유지관리 기준 최적화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궤도를 유지·보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철도 안전 시스템과 고객 편의 시스템에 투자해 이용자 중심의 철도시설물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속도대역별 기준값〉 M : Maintenance(유지관리) 약자

구 분	기 준	개 정(안)
속 도	0~200km/h	80km/h이하 80~120km/h 120~160km/h 160~200km/h
기 준	7mm≤M	17mm≤M 15mm≤M 12mm≤M 11mm≤M

충청권철도 건설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지난 30일 충청권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입찰 공고하여 5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

충청권철도 건설사업은 충청권내 3개 광역지자체인 대전시, 충청남북도를 연결하여 철도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시 요구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한다.

최정환 녹색사업전략처장은 "충청권 철도 건설사업은 경부선 및 호남선 노선을 적극 활용하고, 도시철도와 연계하여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제성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조사 시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예나라' 제25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수상



대표적인 사내동호회 중 하나인 '서예나라'(회장 김경현) 회원 김경현, 김두철, 김한욱 등 3명이 '2013년 대한민국서예대전'에 참여하여 모두 입선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서예나라'(회원 20명)는 2005년 서예가로 활동했던 晩堂(만당) 최건 선생(전 관리본부장)을 주축으로 서예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직원들이 모여 발족했다.

2008년부터는 '백제서예대전', '서예협회대전대회', '서예협회서예대전' 등 지역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올해에는 우리나라 서예 대전 중 최고로 손꼽히는 '제25회 대한민국서예대전'에 3명이 출품하여 모두가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서예나라' 회원들은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국내 서예 대전에 꾸준히 도전하고, 특히 제26회 서예대전에서는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임직원 및 가족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직장 내 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서예대전' 수상 작품들은 서울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6일(5.15~5.20) 전시될 예정이다.

(건설본부 김두철 기자)

기사시판

주요뉴스 ('13.4.15~'13.4.26)

- 신분당선 '레일클럽' 400개 파손 (중앙일보01)
- 인도서도 똑같은 부품 발생...6개월간 열차 운행 중단 (중앙일보08)
- '레일클럽' 10개 연속 깨지면 탈선 위험 (중앙일보08)
- 철도시설공, 이차비용 1300억 절감 (충청투데이09)
- 장항선 광천역 여객기 출몰까 (충청투데이16)
- 수인선 연수·원인제 역세권 개발 (인천일보06)
- 춘천~속초 철도 상반기중 용역 집행 (강원일보03)
-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현안 급부상 (강원일보02)
- '경기도 현안' 국토위 업무보고 '핫 이슈' (경기일보04)
- 레일 클럽 400개 파손 신분당선, 긴급점검 나섰다 (중앙일보12)
- 건설공사 분리발주의 허와 실 (한국경제34)
- 원주~강릉 복선전철 전역구간 시공사 선정 (강원일보02)
-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이말 착수 (서울경제31)
- 박 대통령 "춘천~속초 고속鐵 직접 챙기고 있다" 재차 강조 (강원일보03)
- 수인선 노선변경 입찰처만 확인 (인천일보04)
- 여주~원주 복선전철 반드시 관철 (강원도민12)
- GTX 조기 건설 할 실린다 (경인일보1A)
- 또 한방 맞은 건설업계... "해외發 충격 이제 시작" (조선일보B04)
- 고속철 사업 미시장 진출 눈앞 (서울경제30)
- 철도시설공단 장애인과 불나들이 (충청투데이22)
- 성남~여주 복선철도 신호시스템 변경 (경기일보11)
- "철도시설공단, 신분당선 남품사 등에 4600억 특혜 의혹" (중앙일보06)
- 건설업 해외서 활로 찾자 (서울경제39)
- 저비용·고품질 목표... 모든 철도건설 과정 거품빼기 (서울신문19)
- "정부, 월곳-판교 복선전철 조속 추진하라" (경기일보04)
- 원주~강릉전철 사업 올해 4,650억원 투입 (강원일보02)
- '원주~여주철도'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해야 (강원일보01)
- 김포도시설도 연내 착공 (경인일보20)
- 소재철교 일대 관광지 개발 '탄력' (경인일보21)
-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 내년부터 공사 본격 착수 (전북일보09)
- 철도 유허부지 48만 7000㎡ 주차시설 등으로 민간 임대 (파이낸셜24, 국민일보12, 서울신문14, 대전일보08, 충청투데이09)
- 고속열차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 (중도일보07)
- 본선 폐지 수인선 부지활용 간담회 (경인일보05)
- '국가기간교통망 사업시 예타 면제' (충청투데이 05)
- 국유재산 무단점용 제재 강화된다 (한국일보17)
- 공기업, 5년 뒤 '부채 폭증' 빛 증가 사업 줄줄이 대기 (경향신문17)
- 건설 일자리 5년간 51만개 사라져 (중앙일보06)
- '올여 겨자 먹기로 저가수주' 건설사를 딜레마(한국일보17)
- '경제뇌관' 공기업 부채 특대책 있어야 (서울신문31)
- 철도공단 전국 147개 철도 유허부지 임대 (서울경제31)
- 철도공단, 설계VE 시행 사업비 497억 절감 (충청투데이09)
- 춘주 경유 내륙고속철도망 구축 '시동' (충청투데이19)
- '여주~원주 전철 일단 단선으로 유치' (강원일보18)
- 정치권, 코레일 사업청산 돕는 법안 발의 (동아일보02)
- 서울~강릉 1시간14분... 교통 물류허브 기대 (강원도민16)
- 건설기계노조 5개분회 26일까지 총파업 (경상일보06)
- 철도공단 안전총보 캠페인 (충청투데이22)
- 철도 유허부지 40개소 임대사업자 공모 (경북일보03)
- 'KTX 광주역 진입 타당성 낮다' (전남일보01)
- 복선전철 횡성역사 '생운리' 확장 (강원도민12)
- 차대통령 대선공약 '행복주택' 호텔-상가 빈 복합단지로 개발 (동아일보B02)
- 차대통령 "공공기관 변화가 새정부 성과 잭팟" (서울신문06)
-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 철도시설공 설계 직접감독 (파이낸셜26)
- 호남선 철로 내려앉아 열차 2시간 동안 지연 (조선일보14, 서울경제28, 대전일보06, 중도일보05, 충청투데이06)
- KTX 불량 레일패드 근본대책 서둘러라 (서울신문31)
- KTX 광주역 진입 고집할 일 아니다 (전남일보19)
- "공공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 (경기일보04)
- '해외건설+금융' 패키지수주 늘린다 (매일경제25)
- 주택경기 침체 지속... 공공발주 급감...해외수익마저 줄어 사면초가 (서울경제03)
- 철도건설 수주업체 선정 (중도일보08, 충청투데이09)
- 철도시설공단, 수인선 지하역에 상업시설 설치키로 (경인일보06)
-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하차 노출 (인천일보02)
- '동서고속철 물류강국 기초틀 것' (강원도민일보02)

경 조 사

■ 영남본부 건설처 김인수 부장 장려론
- 일시: 2013년 5월 11일 토요일 12시
- 장소: 대전 엑스포 컨벤션 웨딩홀